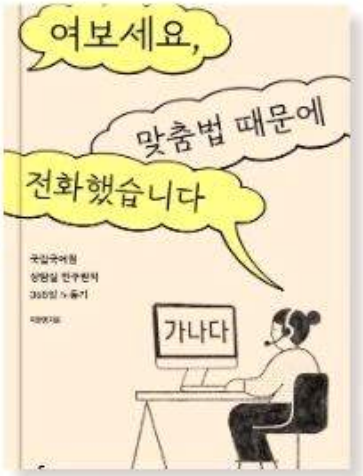
2026.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10월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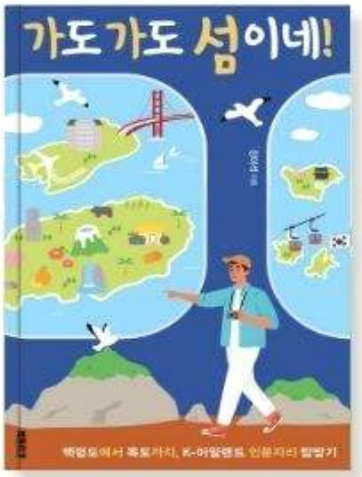
교육리더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이현영 지음

고등



가도 가도 섬이네!

강이석 지음

중등



두근두근 에코 클럽

하이은 지음

초등고



왜 어떤 말은 상처가 될까?

공주영 글, 우지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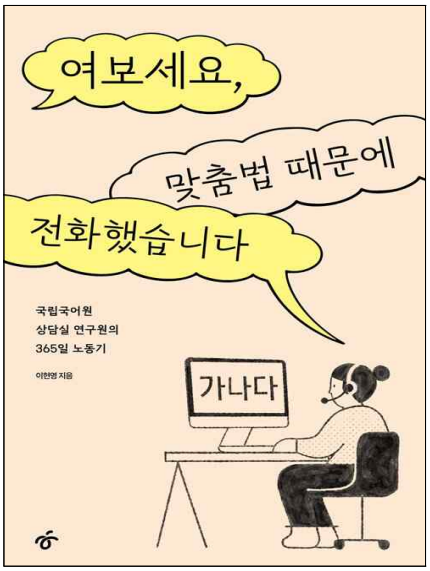
초등저



우렁 공주

지영우 글·그림

이 추천도서 요약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사서들로 구성된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이달의 책〉 TF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이현영 지음
한겨레출판 / 2026 / 224쪽

글 너머에 있는 마음을 조금만 더 믿어 준다면,
맞춤법은 서로를 가르는 선이 아니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

책 속 구절, 14쪽

맞춤법이라는 세계에 담긴 관계의 온도

'라면을 끓여오거라'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로서'와 '로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궁금했을 맞춤법에 대해 채팅 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전화로 빗발치는 질문에 답변해 주는 이들이 있다.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은 한 명이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질문을 처리하는 치열한 노동의 현장이다. 10년 차 상담 연구원인 저자는 상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 저마다의 고민을 차근차근 풀어 놓는다.

질문하는 이들은 다양하다. 자막 작업 중이라 빠른 답변을 원하는 작가부터, 시험 문제를 점검하려는 교사, 수업 중 강사의 '○○씨'라는 호칭이 어색해 상담하는 수강생, 쉴 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단골손님까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한 이의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언어 규범 밖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감정, 관계의 온도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빠르게 변하는 언어생활 속에서 실제 쓰임을 다루다 보니, 사전의 기준과 사람들이 쓰는 방식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연구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연찬회 풍경도 흥미롭다. '다시 한번'은 5년 동안 3번이나 토론에 부쳐진 단골 안건이라고 한다. 또한, 많이들 궁금해하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는 같은 마음의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결론도 재미있다.

맞춤법이 기본 소양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틀릴까 조바심 내는 마음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는 탓이다. 글이 얼굴을, 문장이 사람을 대신하는 관계에서는 약간의 어긋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리라. 맞춤법에 서툰 이가 오히려 반갑다는 저자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2026년 10월

고등



가도 가도 섬이네!

강이석 지음
북트리거 / 2026 / 305쪽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람과 문화, 그리고 사건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경계의 장소입니다.

책 속 구절, 166쪽

대한민국 섬,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나라에 섬이 3,390개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가도 가도 섬이라는 말처럼, 알고 보니 대한민국이 섬 부자라는 사실을 한 권의 책으로 보여준다. 현직 지리 교사이자 유튜브 '지리는 강선생'을 운영하는 저자가 전국 각지의 섬을 여행하며 만난 자연과 역사, 문화와 인물을 알뜰살뜰 엮었다. 탐방에 동행할 준비가 됐다면 첫 장을 펼쳐보자.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여행은 섬의 정의부터 출발한다. '섬은 산이다'라는 간단명료한 문장을 풀어 섬이 만들어진 과정을 쉽게 설명한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단순한 지리적 정의 너머 국가의 영역과 바다의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섬의 가치를 보여준다. 13개 테마, 18개의 섬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아 숨 쉬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독특한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제주도와 울릉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여의도와 남이섬처럼 육지 안에 자리한 하중도의 변화무쌍한 개발 과정을 살피고,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역사의 아픔이 새겨진 흔적을 따라 걷는다. 해무가 심한 날엔 카드 결제도 되지 않아 단숨에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다는 백령도, 골리앗 같은 크레인 아래 평생을 보낸 거제 조선업 노동자의 이야기는 섬 고유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여행에서 직접 겪은 에피소드, 간략한 코스와 먹거리를 소개해 관광 가이드 삼아 가뿐히 책장을 넘기기에 좋다. 각 장 말미에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듯 세계 곳곳의 섬 이야기까지 추가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바다 건너 멀리 동떨어진 곳이라 생각했던 섬이 다채로운 얼굴로 새롭게 떠오른다. 책장을 덮을 땐 직접 가보고 싶은 섬 하나쯤은 마음에 남지 않을까?

2026년 10월 / 중등



두근두근 에코 클럽

하이은 지음
뜨인돌 / 2026 / 192쪽

우리 아빠가 그랬다. 남자에게 첫사랑은
탄산음료의 첫 모금 같은 거라고. ……
결심했다. 그 애의 첫사랑이 되기로.

책 속 구절, 5쪽

가짜 친환경 소녀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애석하게도 재이는 얼굴, 키, 몸무게 모두 평균이다. 성적은 평균을 한참 밑돌긴 하지만. 이런 재이 앞에 하이틴 로맨스 영화 주인공 같은 신우가 나타난다. 얇은 속쌍꺼풀, 웃을 때 코를 찡긋거리는 버릇,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과 환경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씨까지 완벽 그 자체다. 가입했던 동아리가 없어지고, 이를 기회 삼아 신우가 속한 환경 동아리로 옮기게 된다. 과연 그 아이의 첫사랑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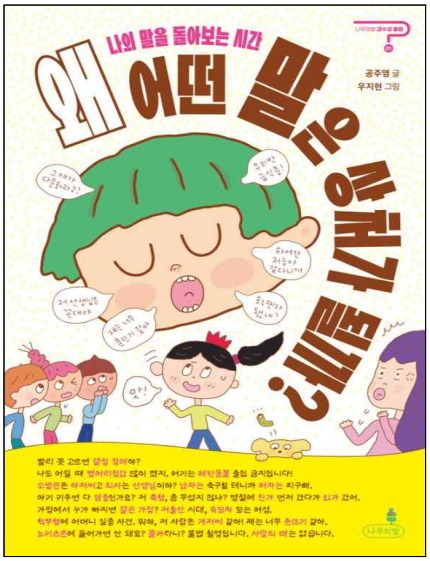
백신우 공략법을 찾던 재이는 짝남에게 잘 보이려고 환경 운동가로 거듭난다. 엄마 차 대신 고물 자전거로 등교하고 촌스러운 텀블러도 챙긴다. 제육볶음을 사랑하는데도 급식 땐 채소만 먹으며 친환경주의자인 척한다. 그러나 고기를 먹다 걸리고 엄마 차를 타고 등교하다 같은 동아리 도현에게 들켜 약점까지 잡힌다. 게다가 가까이서 지켜본 신우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과 달라 마음이 복잡하다.

신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 환경에 관심 있는 척했지만, 어느새 자기도 몰랐던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삼시 세끼 고기가 있어야 입맛이 돌았는데 나물의 참맛을 알게 된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던 등굣길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더 나아가 업사이클링에 재미를 느끼고 급식 잔반 대항전 아이디어도 내는 등 가짜로 시작했던 친환경 생활은 진짜 즐거움으로 변해간다.

짝사랑, 환경이라는 의외의 조합을 사랑스럽게 엮어낸다.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시작한 행동들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진다. 서툴고 귀여운 짝사랑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주인공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2026년 10월

초등고



왜 어떤 말은 상처가 될까?

공주영 글, 우지현 그림
나무의말 / 2026 / 132쪽

차별어를 알고 바꾸려는 노력은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사람이 되는 일이야.

책 속 구절, ///쪽

“지금 네가 한 말은 불편해.” 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

결정 장애, 흑형, 꼰대, 촌뜨기… 아마 한 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그 속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상처입히는 마음이 숨어있다면 정말 사용해도 괜찮을까? 웃자고 던진 말, 습관처럼 따라 한 말,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말 속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자.

말은 생각과 행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결정 장애’라는 말은 장애를 가볍게 여기거나 얕잡아보는 마음이 담겨 있다. ‘흑형, 꼰대, 촌뜨기’ 같은 말은 사람을 인종과 세대, 지역으로 나누어 낮춰 부르는 말이다. ‘저출산’이나 ‘결손가정’처럼 뉴스에 나오고 익숙하게 사용해 온 말이라도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심코 반복하는 말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차별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글쓴이는 차별적인 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도 함께 제안한다. ‘벙어리장갑’ 대신 ‘엄지장갑’, ‘반팔 티셔츠’ 대신 ‘반소매 티셔츠’처럼 더 나은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인싸와 아싸’, ‘정상과 비정상’처럼 사람을 함부로 구분하고 나누는 태도도 돌아본다. 더 나아가 혐오 표현을 마주했을 때는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별하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 먼저 이 책을 읽으며 어떤 말이 왜 차별적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존중은 배려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을 때 나의 권리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2026년 10월

초등저



우렁 공주

지영우 글·그림
사계절 / 2026 / 72쪽

바깥세상에서 고마운 사람 셋을 만나거든
공주님이 아끼는 것을 선물로 주시면 됩니다.
사람 셋, 선물도 셋. 참 쉽죠?

책 속 구절, 22쪽

우렁 각시의 후손을 아세요?

단군 신화의 웅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그리고 우렁 공주.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평범한 우렁이가 아니라 설화 <우렁 각시>의 후손이다. 작가는 자신이 나고 자란 왕국과 부모님을 뒤로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공주의 모습을 귀엽고 발랄하게 그려낸다.

호기심 많은 우렁 공주는 사람으로 변해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우렁 각시> 이야기를 몰래 읽은 후 낯선 세상에 대한 동경과 궁금증을 키운다. 혼자 바깥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날, 부모님의 당부를 어기고 금지된 곳인 붉은 돌 너머로 향하고 만다. 그곳에서 눈앞의 세상에 흠뻑 빠져들어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우렁 각시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주었다는 두꺼비 여사를 찾아간다.

두꺼비 여사가 알려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고마운 사람 세 명에게 아끼는 것을 선물하는 것. 단, 절대로 사람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100일간 쑥과 마늘만 먹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보다는 쉬워 보인다. 조그만 종이컵 속에 모습을 감춘 채 꼬물꼬물 길을 나선 주인공의 앞길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 과연 우렁 공주는 무사히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옛이야기의 익숙한 틀에 기발한 상상과 아슬아슬한 모험을 더해 새롭게 풀어낸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실함이 우렁 공주에게 뜻밖의 도움이 되고, 공주 역시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마음을 나눈다. 서로의 작은 선의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따스하고 아기자기한 수채화 그림과 함께 따라가다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림책이다.